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7. 3. 31

금 용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

여러분, 만나서 반갑습니다.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입니다.

먼저, 바쁘신 와중에도
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
관계기관 기관장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
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
바로 서민·취약계층 분들입니다.
그분들에게 여전히 금융의 문턱은 높고,
사회·경제적 자활·자립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.

이러한 고민은
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.
국제적으로도 금융의 포용성(Financial Inclusion)을 확대하여
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*가
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

*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('16.7.24), G20정상회담 공동선언문('16.9.5, 항저우) 등

우리도 서민·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에 대한
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

2 그간의 추진 성과

그런 의미에서 2016년은 '서민금융'에 있어서
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.

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법률」이 제정되었고,
이를 토대로 서민금융 총괄기구인
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(16.9.23) 하였습니다.

진흥원은 여러 기관에서 관리해오던
정책 서민금융상품*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
지난해 5조원 이상의 정책 서민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.

* 미소금융, 햇살론, 바퀴드림론, 새희망홀씨

지난해 7월 출시한 중금리 사잇돌 대출도
현재까지 약 5천억원 이상 공급되어
중신용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.

* '17.3.27일 기준 총 5,402억원 공급(은행 3,423억원, 저축은행 1,979억원)

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34.9%에서 27.9%로 인하하고,
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여,
서민의 고금리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
노력을 기울였습니다.

3 향후 서민금융 정책방향

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서민금융의 기반을 토대로,
보다 적극적인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
① 지원기준 완화 및 한도확대

첫 번째로, 정책 서민금융의 포용성을
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.

미소금융 지원대상을
기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분들에서
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들까지 완화하고,

햇살론·새희망홀씨·바퀴드림론의 지원대상도
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*인 분들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
*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

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는
새희망홀씨의 지원한도*도 확대하여,
低利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분들께
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2천5백만원 → 3천만원

② 청년·대학생 금융지원 확대방안

두 번째로, 청년·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저성장 시대에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. 청년·대학생은 우리사회 전체와 또 세대가 함께 투자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.

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'출발의 실패'로 낙심하지 않도록 최선의 금융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.

청년·대학생 햇살론의 한도를 확대(800 → 1,200만원)하고, 주거 임차보증금(최대 2,000만원, 금리 연 4.5%)을 지원하여 재학기간 중 자금 걱정 없이 학업·구직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지난 2월 개소한 청년·대학생 집중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, 상환·거치기간도 연장하여,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③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

세 번째로, 정책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금융이 소외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다음 발전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*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여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.

*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

취약계층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주거비,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, 대상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원*도 추가하겠습니다.

* 청소년한부모가족(자산형성지원), 조손가족(조부모 소액실손보험 지원), 다문화가족·북한이탈주민(금융피해지원)

금융 이용 경험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'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' 제도를 도입하여, 정책서민금융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.

“가장 아픈 곳이
내 몸의 중심”이라고 합니다.

시장금리가 상승하고
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에는
가장 고통 받기 쉬운 서민·취약계층이
우리 금융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.

앞으로 우리 서민금융 정책이
고통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지,
또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
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

옛말에
“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”^{*}고 합니다.
오늘 이 협의회를 통해
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에 대한
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.

^{*} 일인불과이인지(一人不過二人智)

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
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